

# 2010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③	2	④	3	④	4	②	5	②
6	②	7	⑤	8	②	9	①	10	⑤
11	④	12	④	13	⑤	14	③	15	④
16	②	17	②	18	⑤	19	④	20	①
21	④	22	⑤	23	②	24	①	25	①
26	①	27	③	28	④	29	④	30	④
31	①	32	④	33	④	34	①	35	③
36	⑤	37	③	38	③	39	②	40	⑤
41	③	42	①	43	②	44	③	45	②
46	⑤	47	⑤	48	③	49	⑤	50	③

### 듣기대본 및 해설

#### 1. <듣기> 다음은 '웃음 치료사'가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페치아담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웃음의 치료 효과를 믿는 한 의사가 환자들에게 웃음을 줌으로써 질병을 치료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처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웃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웃음도 있습니다. 먼저 좋은 웃음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은 웃음의 대표적인 것은 '폭소'입니다. 이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으로,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호쾌한 웃음을 의미하는 '대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박장대소', '파안대소'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백만 불짜리'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미소'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웃음이지요.

반면 좋지 않은 웃음도 있습니다. 허탈하거나 가벼운 손해를 입었을 때 웃는, 흔히 쓴웃음이라고 하는 '고소'가 있습니다. 또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웃음으로 '실소'가 있지요. 그리고 경멸, 체념 등의 뜻이 담긴 웃음인 '냉소'도 독이 되는 웃음으로, 진정한 웃음은 아니죠.

잘 아셨나요. 그럼 이야기 하나를 들려 드릴 테니 여기에서 승객들이 웃었을 웃음을 한번 맞춰 보세요.

밤 늦은 시간, 눈 내린 시골길의 마을버스에서 할머니와 손녀로 보이는 어린 아이가 내렸 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내려놓고 이내 달릴 것 같았던 버스는 방향만 조금 틀었을 뿐, 한참 동안 안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던 승객들은 웅성거리며 의아한 눈으로 버스 앞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환하게 비치는 버스 불빛의 도움을 받으며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조심, 손잡고 걷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운전기사의 의도를 알게 된 승객은 모두 웃으며, 이 행복한 기다림에 동참하였습니다.

**[출제의도]** 들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들려준 내용과 어울리는 웃음은 미소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 2. <듣기> 다음은 수업 중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남) : 선생님, 방언 자료를 수집하는 수행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교사(여) : 네, 방언 자료 수집은 현지 조사 단계와 현지 조사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현지 조사 전 단계는 민속 자료집이나 방언집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 대상 지역에 대한 예

비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남) : 그럼 현지 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교사(여) : 현지 조사 단계는 조건에 맞는 제보자를 대상으로 준비된 조사 항목에 따라 질문을 하면서 방언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남) : 네, 선생님. 그런데 제보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교사(여) : 네, 누구나 제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자의 조건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전형적인 방언을 말해 줄 수 있는 순수 토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 토박이란, 그 지역에서 3대 이상 살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학생(남) : 선생님. 그럼, 질문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교사(여) : 먼저 방언 조사의 목적이나 필요성,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어 제보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사자가 미리 정한 조사 항목에 대한 방언형을 제보자가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할 때 명심할 점은, 조사자는 제보자가 답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에 대한 주변 설명만 해야지, 제보자가 답하기 전에 조사 항목을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리'의 방언을 조사할 때, 제보자에게 "저기 벽에 붙어 있는 까만 날벌레를 무엇이라고 합니까?"라고 해야지, "과리를 이 동네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라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남) : 아, 이제 좀 알겠네요. 선생님, 그 밖에 유의할 점은 없나요?  
 교사(여) : 물론 있지요. 조사자는 제보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음성'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자의 선입관 때문에 제보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심하거나 잘못 듣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듣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방송에서 들려준 내용에는 제보자가 답하기 전에 조사 항목을 먼저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 3. 이번에는 '청소년을 위한 명사 특강'이라는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원조위원회의 홍보대사입니다.  
 우리는 2009년 11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되어 반세기가 되기도 전에 원조대상국에서 원조제공국이 되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세계 원조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기부국 클럽으로 선진국 중의 선진국 모임으로 불립니다. 가입 조건은 공적개발원조 총액이 연간 1억 달러를 넘거나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총액은 기준을 넘었지만 국민총소득 대비 원조 비율은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제작년 기준, 국민 1인당 공적개발원조 기여액은 우리가 평균 16달러인 반면, 개발원조가입국 평균은 134달러나 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부터 원조대상국 신분을 벗어나기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 액수는 현재 가치로 환산해 6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반면 지금껏 우리가 남을 도운 액수는 48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남을 도울 여력이 있느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외교부가 제작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72%는 대외 원조가 국익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원조 규모를 늘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현 수준 유지'가 절반이 넘고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도 28%가 나와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운 나라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일은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어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책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돕는 일입니다.

**[출제의도]** 라디오 방송을 듣고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방송 내용을 통해 국민의 22% 정도만이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 4~5. <듣기> 다음은 학생회 회의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 축제 기간에 실시될 '교내 단축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학생회 여러분의 좋은 의견 바랍니다.  
 여학생 : 먼저 건강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작년에 일부 학생들이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생략해서 크고 작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살을 뺄 목적으로 땀복을 입고 달리던 학생이 탈수증으로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학생 : 뿐만 아니라 작년 대회 이후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본교 학생이라면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 불만이 많았어요. 평소 운동량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10km라는 거리를 모든 학생들에게 완주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만 대회에 출전해야 합니다.  
 여학생 :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 마라톤 대회는 '도전과 인내'에 가치를 두고 매년 실시되는 만큼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회의 가치를 이해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진행자(여) : 소중한 의견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학생들에게 대회 참가의 의의를 인식시켜서 모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학생 : 단순히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대회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어요. 무성의하게 참가하는 학생들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천히 걷거나, 중간에 흐지부지 흩어지는 모습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참가 학생들의 의욕을 잃게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었잖아요.  
 남학생 : 그렇다면, 완주에 대해 적절히 보상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제 아버님께서 마라톤 완주 기념 메달을 갖고 계신데,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메달을 보실 때마다 자랑을 하시곤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교내 단축 마라톤 완주 인증제'를 실시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인증을 통해 완주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여) : 대회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학교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라톤 대회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출제의도]** 회의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회의에서 본교 학생들 모두 마라톤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불만 의견이 있었지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언급으로 마무리하였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출제의도]** 회의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회의 진행자는 아버지의 마라톤 완주 기념 메달에 대한 자부심을 언급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쓰기\*\*

6. [출제의도] 주어진 그림을 보고 착안점에 주목하여 내용을 연상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부분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삶의 태도라는 주제에 맞게 연상내용을 생성하는 문제이다. ㉠은 위험을 알리는 부표를 넘어간 사람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므로, 도전정신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이다.

7.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끌어낸 논지가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는 녹색소비의 개념 및 영국의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나)는 친환경 상품의 시장 규모 및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고, (다)는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자료이다. 이를 통해서는 녹색소비와 국민 전체 소비량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8. [출제의도] 개요를 수정·보완하는 문제이다. 전송권 보호를 위한 제도 수립은 정책적 측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9.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주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생각되어집니다'는 '생각합니다'로 고쳐야 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10. [출제의도] 문장에서 어휘의 사용이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①의 '몇 일'은 '며칠'로, ②의 '오랜동안'은 '오랫동안'으로, '오랫만에'는 '오랜만에'로, ③의 '부비며'는 '비비며'로, ④의 '밀어부쳐'는 '밀어붙여'로 써야 하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1.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는 문제이다. 상황, 어조, 인과관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12. [출제의도] 주체높임법의 용례를 묻는 문제이다.

ㄴ의 높임 대상은 '살림'이고, ㄷ의 높임 대상은 '작은아버지'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현대시\*\***

□ 출전 : (가) 오장환, 「The Last Train」 (나) 김수영, 「비」 (다) 최치원, 「추야우중(秋夜雨中)」

1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작품에서 화자가 처한 현실을 (가)는 '병든 역사'로, (나)는 '비애'로, (다)는 '괴롭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4.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이다.

3연의 '대합실에 남은 사람'을 통해 비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내용은 시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15. [출제의도]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는 문제이다.

[A]는 슬픔, [B]는 비애가 지배적 정서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16. [출제의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능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나타난 '언제나 속도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2연의 '새벽만을 향하고 있는'에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새벽'과 '밤'은 대립된 이미지이나, 속도 경쟁이 없는 것은 '밤'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17. [출제의도] 두 시에 사용된 소재의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문제이다.

①을 기본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18. [출제의도] 표현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의 '달리네'에는 화자의 경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름을 날리겠다는 의지는 아니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예 술\*\***

□ 출전 : 국립문화재연구소, 「발탈」

19.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이다.

발탈은 상반신만 있는 인형(조종자)과 어릿광대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놀이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20. [출제의도] 정보를 통해 파악한 대상의 역할을 다른 장면에서 유추하는 문제이다.

㉠의 '양반들'은 관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1. [출제의도] 제시된 지문과 관련된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발탈은 갈등 관계가 단조로우며, 꼭두각시놀음은 첨예하고 복잡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고전 소설\*\***

□ 출전 : 작자미상, 「춘향전」

22.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은 있으나, 이것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23.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대부인과 월매는 둘 다 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화를 내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24. [출제의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따라 춘향의 급격한 태도 변화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25. [출제의도]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한 한자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청천벽력'은 '뜻밖'에 일어난 큰 변동, 갑자기 생긴 큰 사건'이라는 의미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전진공공'-매우 두려워 조심함, '와신상담'-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괴롭고 어려움을 참고 견뎌, '자승자박'-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함, '동상이몽'-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

**\*\*인 어\*\***

□ 출전 : 천시권·김종택, 「국어의미론」

26.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을 찾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속담의 구조 및 언어기능에 대한 구체적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27.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여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전·후구의 의미체가 긴밀하게 결합되는 속담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28.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말조심을 실감할 수 있는 속담은 ④번이다.

**\*\*시나리오\*\***

□ 출전 : 최금동·김강운 각색, 「역마」

29.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나 있는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ㄴ은 # 128을 통해 알 수 있고, ㄷ은 옥화가 성기와 계연의 기대를 저버렸음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30.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의 '꽃주머니'는 떠나는 계연에 대한 옥화의 서운함과 축원 등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재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31. [출제의도] 작품 감상 능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 128은 분위기와 인물의 태도가 강경한 어조와 빠르게 말한다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과 학\*\***

□ 출전 : 야마모토 다이스케, 「3일만에 읽는 뇌의 신비」

32. [출제의도] 글 속의 정보를 도식화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4단락은 비교와 대조를 통한 뇌사의 특징을 나타내므로, '뇌사 판정의 절차'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호흡 장애와 심장박동의 이상은 뇌간의 기능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34.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추론하는 문제이다.

식물인간은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어도, 뇌간의 기능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인 문\*\***

□ 출전 : 금장태, 「한국의 선비와 선비 정신」

35. [출제의도] 글의 제목을 찾는 문제이다. 이 글은 선비의 입부와 수련 방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3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문제이다.

2단락에서 선비가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모범을 보인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관련 자료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선비가 풍류를 동경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38.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의 '만들다'는 '어떤 상태를 이루어 내다'는 의미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현대 소설\*\***

□ 출전 : 이태준, 「패강령」

39.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패강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영향을 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40.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상건방지'에서는 다가올 시련을 예감하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기존의 가치관을 전환하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41. [출제의도] 인물의 성향과 갈등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A]의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현의 성향이 [B]의 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42.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인물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현'과 '김'의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현'은 고유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위기를 예감하는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사 회\*\***

□ 출전 :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나라」

43. [출제의도] 글의 세부정보를 파악하여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⑥가 많아진다는 것은 현재소비를 줄인다는 것인데, 4단락에서는 미래소비를 위해 현재소비를 줄이면 고통이 따른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44.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개념을 파악하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월급을 쪼개어 적금을 붓는 행위는 시간 선호에 따른 현재소비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미래의 이자 수익을 올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5.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소비를 부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소비와 현재소비는 모두 만족을 주는 것으로, 일정하게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6.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고려'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하고 헤아려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기 술\*\***

출전 : 자료 활용

47. [출제의도] 글의 세부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휴대전화의 기능을 오프라인 영역까지 확대시켰다는 내용은 3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48. [출제의도]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통신사에 개인 계좌 정보를 전송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49.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것은 USIM을 활용한 사례가 아니며, 위 글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50. [출제의도]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는 유의 관계이다. '바라다:지양하다'는 유의 관계가 아니므로 정답은 ③번이다.